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Sillas World View, the Idea of the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저자 (Authors)	김수태 Kim, Soo-tae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32) , 2014.12, 25-81(57 pages) SILLASAHAKPO (32) , 2014.12, 25-81(57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94249
APA Style	김수태 (2014).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32), 25-8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서관 183.106.106.*** 2021/10/19 11:3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김 수 태*

- | | |
|--------------------------|-----------------------------|
| I. 머리말 | III. 삼국통일론의 형성과
신라 대국론 |
| II. 신라 소국론과 백제·고구려
평정 | IV. 삼국통일론의 실질적 추구
V. 맺음말 |

【국문초록】

신라 중대와 관련된 논쟁 가운데에서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제는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된 문제이다. 삼국통일을 위한 전쟁이었는가, 백제통합만을 위한 전쟁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신라가 처음부터 삼국통일을 의도하고 전쟁을 벌였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신라로서는 백제와 고구려에 대해서 통일전쟁을 벌일 의지를 키워나가는 어려운 사정이었다. 백제멸망이 신라의 목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고구려 내부의 혼란이 진행되자 신라는 고구려멸망까지를 계획하고 주도해나갔다.

신라의 삼국통일론이 형성된 시기는 671년 무렵이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주요 논저 : <백제의 멸망과 당> 《백제연구》 22, 1991 ; <문무왕> 《한국사시민강좌》 13, 1993 ; <신라 문무왕대의 대북속민정책> 《신라문화》 16, 1999 ; <신라 신문왕대 국왕 친영례의 시행> 《신라사학보》 29, 2013
외 다수.

일했다는 언급이 처음 나오기 때문이다. 중국의 당나라가 천하를 통일했다면,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를 분리시켜 지배하려는 당의 움직임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신라는 삼국통일론이란 천하관에 이어, 삼한통일론을 새롭게 주장하였다. 이제 삼국이라는 국가의 통일만이 아니라,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종족의 통일을 언급하게 된 것이다. 삼국이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삼한통일론은 673년 김유신의 죽음을 앞둔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는 당나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신라의 입장에서 삼국인들의 단결을 바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내부의 통일 없이는 삼국의 진정한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신라의 삼국통일론이 실질적으로 추구된 시기에 대해서 문무왕대 나당전쟁에서 승리한 676년, 혹은 신문왕대 9주가 설치된 685년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옛 고구려의 영역을 당나라가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 늦은 시기인 성덕왕대 나당관계가 개선되고, 당나라와 신라가 발해의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735년에야 그것은 달성되었다. 당나라가 대동강이남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를 비로소 인정한 것이다. 선덕여왕대 당나라의 태종과 신라의 김춘추 사이에 맺은 약속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동안 신라가 추구해온 독자적인 천하관이 당나라에 의해서 마침내 받아들여진 것이다.

주제어 : 신라, 천하관, 삼국통일론, 김춘추, 당나라 태종, 김유신, 성덕왕

I. 머리말

한국고대사 연구에서 특히 신라 중대는 커다란 논쟁이 많이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논쟁들이 있지만 중대의 정치적 성격이 전제정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를 우선 들 수 있을 것이다. 화엄종이

전제정치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이해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중대가 한국사의 시대구분에서 고대에 속하느냐, 아니면 중세의 시작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란 또한 그러할 것이다. 이것은 신라인들이 태종무열왕의 즉위를 신라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중대의 성립으로 인식하였듯이, 오늘날에서도 중대가 한국사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와 관련해서 일어난 논쟁들 가운데에서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제는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적으로 파악하였던 신채호의 이해 이후 여러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¹⁾ 그 첫째는 삼국통일전쟁이었는데, 백제통합전쟁이었는데가 하는 것이다. 이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의식하고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삼한통일의식이 신라 중대의 지배층에 의해서 문무왕대와 신문왕대에 걸쳐 만들어진 허위의식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삼한통일의식이 중대의 산물이 아니라, 하대에 들어와서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²⁾ 세 번째는 신라의 삼국통일론이 일제 식민주의사학의 소산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통일신라’라는 용어가 신라인들의 삼한통일의식에서

-
- 1) 노태돈, <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한국사연구》 154, 2011. 이는 노태돈의 삼국통일전쟁론과 김영하의 백제통합전쟁론 사이에 일어난 논쟁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 2) 윤경진,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시기에 대한 재검토> 《사림》 45, 2013 및 <신라 태종(무열왕) 시호 논변에 대한 자료적 검토-원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51, 2013과 <신라 중대 태종(무열왕) 시호의 추상과 재해석> 《한국사학보》 53, 2013.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근대에 발명된 것이라는 견해까지 찾아볼 수 있다.³⁾ 당나라 세력을 축출한 676년을 핵심적 기점으로 하는 일제 식민주의사학의 삼국통일론에 입각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된 이러한 논쟁들을 읽어보면 역사인식, 즉 사관과 관련된 부분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름 아니라 신채호 이래, 여기에는 북한의 역사학도 포함되지만, 신라의 삼국통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한국 근현대 사학사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다른 시대의 논쟁에서도 그러하듯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해하는데 사실이 우선인가, 해석이 우선인가 하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1980년대 이후 신라의 삼국통일론을 비판하면서 백제통합전쟁론을 꾸준히 주장해 온 김영하의 《신라중대사회연구》(2007)가 출간되었을 때 나온 서평을 통해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는 역사연구에서 사실이 우선인가 해석이 우선인가 하는 점이다. 저자는 “이른바 삼국통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학사적 검토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과 접근방법을 통해 기왕의 신라삼국통일론보다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나아가 “기실 역사연구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실증과 현재의 해석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으므로, 사실 해석의 역사인 사학사적인 검토는 역사인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였다(23~24 쪽). 여기서 저자의 역사인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거니와, 실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역사해석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중략) 한국 고대사학이 지향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이념적 역사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실증적 역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⁴⁾

3) 윤선태,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신라문화》 29, 2007.

신라의 삼국통일론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에는 실증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백제통합전쟁론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새로운 시각과 관점은 언제나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사료를 보는 새로운 눈을 끊임없이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 역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다.⁵⁾ 기존의 연구가 신라의 삼국통일을 둘러싼 외교나 전쟁의 원인이나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매달린 나머지, 삼국통일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해 왔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오늘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바라보는 현재적 의미도 마땅히 주목하여야 하지만, 그 보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된 여러 사실들이 가지고 있는 당대적 의미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었다. 그것이 올바른 역사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백제통합전쟁론을 주장한 저자는 물론 “개별 사실의 실증 위에서 역사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신라와 발해에 대한 역사인식의 검토에서 남북국론의 유효성을 확인했을 뿐 실증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다음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을 검토한 결과, 신라의 백제통합에 불과한 사실의 구명은 구체적인 실증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면서⁶⁾ 실증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닐까

4) 이영호, <‘신라삼국통일론’에서 ‘남북국론’으로-김영하, 2007,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한국고대사연구》 52, 2008, 477~478쪽.

5) 김수태, <문무왕> 《한국사시민강좌》 13, 1993, 8쪽.

6) 김영하, <7세기 후반 한국사의 인식문제-신라의 백제통합론과 삼국통일론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6, 2009, 367쪽.

생각한다. 왜냐하면 백제통합전쟁론을 보다 일관되게 주장한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2012)의 제목이나 내용들이 보여주듯이 그러한 측면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

신라의 삼국통일을 실증적으로 다룬 중요한 연구 성과인 노태돈의 《삼국통일전쟁사》(2008)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엿볼 수 있다. 동아시아라는 범주 속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거시적으로 다루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점에서 신라사의 여러 국면들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으로,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한편 신라사의 입장에서 삼국통일문제를 다룬 이호영의 《신정 신라삼국통합과 여·제패망원인 연구》(2001)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통일이 아니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러하지만, 여러 역사적 사실들이 가지는 상호 연관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바람직한 역사연구를 위해서 사실과 해석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강조되기 보다는, 이들을 서로 제대로 연결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새삼스럽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신라의 삼국통일론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그와 같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은 하기는 쉽지만 그러한 작업은 매우 힘든 과정과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일부나마 간단하게 밝혀둔 바가 있다.⁸⁾ 이 글에서는 거기에 덧붙여 삼국통일론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정리함으로써 신라의 삼국통일을 새롭게 이해해보려

7) 김수태,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서술된 한국고대사의 흐름-김영하,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한국고대사 연구》 70, 2013.

8) 김수태, <문무왕>을 참고할 것.

고 한다. 이를 위해서 신라의 천하관이 시기별로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볼 것이다. 여기에서 천하관이란 신라가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이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지금까지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문제로 분리시켜 논의해 온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봄으로써 신라의 삼국통일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⁹⁾ 이와 함께 삼국통일론과 관련된 사료들을 시간 축에 놓고서 그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각자가 주장하는 논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료들을 그와 같이 파악하지 않은 측면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라에 의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신라의 삼국통일론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신라의 천하관이 중국의 천하관과 대립하는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겪어나가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II. 신라 소국론과 백제·고구려 평정

이른바 삼국통일전쟁론과 백제통합전쟁론에서 논쟁의 출발이 되는 것은 신라가 처음부터 삼국통일을 의도하고 전쟁을 벌였던 것일가에 대한 문제이다. 삼국통일전쟁론을 주장하는 견해는 신라가 어느 시점

9) 최근 후보돈, <신라의 ‘동경’과 그 의미> 《문자, 기록 그리고 기억의 전승》, 2014에서 이러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에 이르러 삼국통일을 의도하고 전쟁을 벌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신라가 처음부터 삼국통일을 의도하고 전쟁을 벌였던가 하는 점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은 언제부터였는지도 궁금해지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도 삼국통일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전쟁을 벌였는가 하는 문제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지 않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더라면 하는 역사적 가정과 함께 신라의 삼국통일을 비판해온 견해와도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는 64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정세의 진전과 함께 당의 고구려 침공 계획이 구체성을 띠어 갔으며, 삼국 모두에서 의자왕, 연개소문, 김춘추 등 삼국통일전쟁의 주역들이 집권하였다는 지적과도¹⁰⁾ 연결된다고 하겠다. 이들이 삼국통일전쟁의 주역이란 표현은 바로 삼국이 모두 당시 삼국통일을 의도한 것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643년 신라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으로 인하여 사직이 보전되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당나라 태종 역시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를 멸망시킨 다음 그 영토를 나누어가지려고 한다고 말한다.¹¹⁾ 이러한 당나라의 생각이 어느 정도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제가 신라를 비롯해서 고구려까지 통일하려는 생각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한 백제가 의자왕대 신라를 매우 집요하게 공격하였더라도 그것을 신라를 멸망시키려 한 백제의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까지는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10) 노태돈, 앞의 논문, 52쪽.

11) 《삼국사기》 5, 선덕왕 12년.

고구려의 경우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자 고구려가 백제와 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신라에 대해서도 김춘추가 고구려를 방문하였을 때 언급한 내용을 볼 때 신라가 차지했던 고구려 땅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뿐¹²⁾ 신라의 멸망까지를 의도하였다고 읽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구려는 수나라에 이어 당나라의 계속적인 침공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삼국통일전쟁기의 시점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정리한 견해에 의하면 신라를 중심으로, 그 시기로는 640년대가 주목되고 있다.¹³⁾ 신라의 김춘추와 당나라의 태종이 648년에 맺은 협약이 그것을 상징하는 결과이라는 것이다. 나당동맹의 형성이 이루어진 시기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648년을 삼국통일전쟁의 시점으로 파악하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오히려 그 구체적 과정이 진행된 시기부터를 삼국통일전쟁기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이에 당나라 사신의 평양 방문과 고창국 멸망 소식이 고구려에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641년이라는 시기를 들고 있다. 이때부터 시작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의 변화가 648년 김춘추와 당 태종의 밀약에 의한 신라와 당 나라 사이의 군사동맹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자장의 건의에 의하여 황룡사 9층탑이 만들어진 645년보다,¹⁴⁾ 의자왕대 백제의 신라 침공이 일어난 642년으로 설정한¹⁵⁾ 기존의 견해들 보다 조금 앞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신라의 김춘추를 중심으로 삼국통일전쟁이

12) 《삼국사기》 5, 선덕왕 11년

13) 노태돈, 앞의 논문, 51~52쪽.

14) 이호영, <통일의식과 '일통삼한'의식의 성장>, 앞의 책, 152~159쪽.

15) 노태돈, 앞의 논문, 50쪽에 의하면 이기백이 642년 이후 일련의 상황전개가 삼국통일로 귀결되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도되고, 그에 따라 삼국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¹⁶⁾

그러면 신라가 640년대부터 삼국통일전쟁을 일으킬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되는 이러한 견해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필자는 그 입장을 밝혀둔 바가 있다. 신라가 처음부터 확고한 통일의지를 가지고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통일을 위하여 싸웠는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의문이라고 보았다.¹⁷⁾ 결론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그러한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642년 김춘추는 백제의 대야성 공격으로 딸이 죽자, 어찌 백제를 삼키지(吞) 못하겠는가 하며, 백제에 원수를 갚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백제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구려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대고구려 청병외교를 전개하고 있다.¹⁸⁾ 그것은 진덕여왕대인 648년에 들어와서 김춘추가 아들 문왕과 함께 당나라에 건너가서 태종을 만나 나눈 이야기에서도 같은 사실이 나오고 있다.¹⁹⁾ 역시 백제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의 대당 조공을 위해서는 당나라의 백제출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이에 태종이 출병을 허락했다고 한다. 이것은 김유신전의 기록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²⁰⁾ 따라서 그 당시까지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모두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16) 이기동, <수·당의 제국주의와 신라외교의 묘재> 《신라문화》 24, 2004, 20쪽에서도 신라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계기로 하여 삼국통일의 전망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17) 김수태, 앞의 논문, 6쪽.

18) 《삼국사기》 5, 선덕왕 11년.

19) 《삼국사기》 5, 진덕왕 2년.

20) 《삼국사기》 41, 김유신전 상.

문무왕이 설인귀에 보낸 답서에서는 이와 다른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 주목된다. 사료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지만,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²¹⁾ 이때 당 태종은 김춘추에게 고구려 침공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 백제 토지는 모두 너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구려 공격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²²⁾ 이에 대해서도 사료 해석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났다. ‘평양 이남 백제 토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삼국통일전쟁론자는 평양 이남 지역과 백제토지로 해석하고 있으며,²³⁾ 백제통합전쟁론자는 이를 평양 이남의 백제토지로 한정시켜 보고 있는 것이다.²⁴⁾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료는 보다 다양하게 읽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백제 토지 기사만을 가지고 삼국통일전쟁론이나, 백제통합전쟁론을 이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무왕이 설인귀에 보낸 답서와 신라본기의 진덕왕대 내용은 서로 차이가 나는 다른 것이 아니다. 김춘추는 백제공격을 당에게 요구하면서 협력을 구한 것이고, 당 나라 태종은 그것만이 아니라 고구려공격까지를 신라에게 요구하면서 협력을 구하였던 것으로, 두 내용이 상호 연결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어서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공격의 주체가 누구이나 하는 문제이다. 위의 기록에서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

21) 김진한, <「답설인귀서」에 보이는 신라·당 밀약기사의 사료적 검토> 《인문논총》 71권 1호, 2014.

22) 《삼국사기》 7, 문무왕 11년.

23) 노태돈, <‘삼국통일’이란 개념은 성립하는가?>, 앞의 책, 30쪽 및 <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한국사연구》 154, 2011, 331쪽.

24) 김영하,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연구》 59, 2010, 299쪽.

를 공격하는 주체와 관련해서 ‘내가(我)’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이는 신라의 김춘추가 아니라, 바로 당나라의 태종임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이는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 의도를 드러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나라의 최종적인 목표가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였음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당나라 태종은 신라 김춘추에게 백제를 멸망시키게 된다면 백제 토지를 줄 것이며, 더 나아가 신라가 고구려의 후방에서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에 협력한다면 평양 이남의 고구려 토지까지를 준다고 약속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은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침공하였을 때 신라군의 작전범위와 관련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신라군의 작전범위와 관련시켜 이해한 견해에 의하면 신라군이 실제로 활동한 공간이 그러하였다고 한다.²⁵⁾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라의 김춘추와 당나라 태종 사이에 밀약이 맺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양 이남과 백제 토지로 사료를 읽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648년 백제 및 고구려와 오랜 기간 상쟁을 벌여왔던 신라가 자기 나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고구려와 백제 양국을 멸망시키겠다는 인식을 가졌다고²⁶⁾ 곧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는 신라의 위치로 볼 때에도 신라가 640년대에 들어와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질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도 크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라는 스스로를 소국으로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춘추가 백제공격을 위해서 고구려에 출병을 요청하러 갔을 때 고구려를 대국으로 부르고 있다.²⁷⁾ 그것은 백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김춘추가 당 태

25) 노태돈, 앞의 논문, 31~32쪽.

26) 노태돈, 위의 논문, 31쪽.

중으로부터 백제 출병을 약속받고 돌아오자 김유신이 국왕에게 이제 백제에 대한 보복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때 진덕여왕은 “소국이 대국을 건드렸다가 위험을 당하면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하였던 것이다.²⁸⁾ 백제 역시 신라에게는 대국이었던 것이다. 이에 당나라에 가서 청병외교를 벌였던 김춘추는 백제를 강하고 교활하다고 표현했던 것이다.²⁹⁾

신라는 당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똑 같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648년 한질허가 사신으로 당나라에 조공하러 갔을 때, 당 태종은 신라가 신하로서 대국 조정을 섬기면서 어찌하여 따로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물었다.³⁰⁾ 당은 신라에 대해서 대국으로 자처하였는데, 신라 사신은 당이 설정한 신라와의 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때문에 그는 만일 대국의 조정에서 명령을 내려 정삭을 반포해준다면 신라와 같은 소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대답하였다. 그 결과 650년에 들어와서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신라 소국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신라의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신라의 현실이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소국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던 신라가 처음부터 백제와 고구려에 대해서 통일전쟁을 벌일 의지를 키워나가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보다는 오히려 당 태종의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라의 형편은 백제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존망 문제, 즉 생존을 어떻게 도모해야 하는가 하

27) 《삼국사기》 5, 선덕왕 11년.

28) 《삼국사기》 41, 김유신전 상.

29) 《삼국사기》 5, 진덕왕 2년 및 《삼국사기》 7, 문무왕 11년. 《삼국사기》 43, 김유신전 하에 의하면 백제는 오만으로, 고구려는 교만으로 위태롭게 되었다고 한다.

30) 《삼국사기》 5, 진덕왕 2년.

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다른 나라의 도움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었다. 때문에 소국인 신라는 처음부터 대국인 고구려나, 당나라에 매달려서 이들 국가의 군사적인 도움을 통해서 백제의 움직임을 견제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라의 의지가 아니라, 신라가 청병외교를 벌인 상대국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였다. 이러한 까닭에 신라가 삼국통일에 대한 의도를 곧바로 가지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겠다.

신라의 삼국통일론과 관련해 언급되는 이른바 신라 혹은 김춘추의 사대주의 외교론에 대해서도 다시 간단하게 언급해두고 싶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백제의 멸망과 당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통해서 상세하게 다룬 바가 있다.³¹⁾ 그러한 논리를 따른다면 신라의 사대주의 외교가 아니라 백제의 사대주의 외교로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비시대에 들어와서 대외적인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백제는 삼국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대당외교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백제는 당과의 기존의 밀접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고구려와의 협력 속에서 신라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당의 고구려 정벌이 실패로 끝나게 되자 당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오히려 고구려와 더욱 밀접해지는 등 당나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것이 신라로 하여금 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신라와 당의 백제공격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당나라보다는 오히려 백제 내부의 정세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백제는 655년을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의자왕의 전제정치가 붕괴되면서, 백제의 국력은 급속도로 분산되면서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신라와의 관계도 크게 달라졌다. 이전까지 공격의 주체

31) 김수태, <백제의 멸망과 당> 《백제연구》 22, 1991.

가 백제였던 사실과는 달리 이제 신라로 바뀌어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게 되었다. 그 결과 김유신전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듯이 신라로 하여금 긴급하게 백제를 멸망시킬 모의를 하도록 만들어주었던 것이다.³²⁾ 이에 신라는 백제 내부의 이러한 정세를 당에 전달하면서 다시 출병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백제의 공격을 계속 주저해 오던 당이 드디어 신라의 의견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즉 나당동맹이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백제공격을 바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신라의 주도적인 움직임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필자가 삼국통일전쟁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백제통합전쟁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이란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해 둔 바가 있다.³³⁾ 사실 통일과 통합은 다르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서 언급되는 통합이란 어딘가 어색하다. 통합은 역시 통일이후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통합은 통일 이후만의 문제가 아니다. 복속 혹은, 병합, 멸망시킨 경우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러한 복속, 병합, 멸망에 마땅히 뒤따르게 되는 과정 역시 통합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완전한 형태의 통일 혹은 병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신라가 백제 통합만을 목표로 전쟁을 벌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김춘추 가문이 김춘추의 딸을 살해한 백제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한 동기에서 일으킨 전쟁이었다. 물론 백제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신라의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문무왕은 백제를 적국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³⁴⁾ 그리고 신라는 백제공격에 대해서 통합이 아니라 평정(平定),

32) 《삼국사기》 41, 김유신전 상

33) 김수태,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서술된 한국고대사의 흐름 -김영하,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 출판부, 2012->, 403~404쪽.

34) 《삼국사기》 6, 문무왕 9년 및 《삼국사기》 7, 문무왕 11년.

탄(吞), 병(并), 멸(滅)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즉 신라의 백제 공격은 통일도, 통합도 아닌 것이었다. 그 보다는 신라의 백제평정전쟁 혹은 백제멸망전쟁이었다.

백제통합전쟁론자에 의하면 신채호의 삼국통일론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근거가 된다.³⁵⁾ 그러나 이는 앞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신라의 대당외교를 그와 같이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그것과 신채호가 사대주의자인 김부식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비판한 《삼국사기》의 기록과 관련해서도 그러하다. 이 역시 정당한 주장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념이 불분명한 사대주의론 및 《삼국사기》를 그와 같이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이미 극복되었기 때문이다.³⁶⁾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된 한·중 양국 기사를 비교한 연구도 여기에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³⁷⁾ 《구당서》와 《신당서》보다도 《삼국사기》는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국면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³⁸⁾ 신채호의 역사인식과 관련된 최근의 지적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신채호의 역사인식에는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으며, 그의 사관이 얼마만큼 객관적이며 학술적인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새길 만한 것이다.³⁹⁾

필자가 백제통합전쟁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백제 멸망

35) 김영하, <단재 신채호의 삼국통일론>, 1983 ; 《신라중대사회연구》, 2007.

36) 사대주의론에 대해서는 이기백, <사대주의론의 재검토> 《민족과 역사》, 1971을 참고할 것. 《삼국사기》에 대해서는 이기백, <삼국사기론>, 1976 ; 《한국사학의 방향》, 1978 및 신형식, <고려전기의 역사인식> 《한국사학사의 연구》, 1985, 50~58쪽을 참고할 것.

37) 존 씨 재미슨, <나당동맹의 와해 -한중기사 취사의 비교-> 《역사학보》 44, 1969.

38) 김수태, <백제의 멸망과 당>에서도 이들 사료의 상호관계를 다룬 바가 있다.

39) 이영호, 앞의 논문, 477쪽.

이후 신라가 고구려 멸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는 점과 관련해서이다. 백제통합전쟁론자는 신라의 당의 전쟁은 신라의 백제통합과 당의 고구려점령이라는 기본 전략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다른 차원의 전쟁이라고 구별해서 파악하고 있다.⁴⁰⁾ 이러한 견해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김춘추와 당 태종이 밀약했을 때부터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⁴¹⁾ 백제멸망 직후에 있어서 신라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태종 무열왕이 죽었기 때문에 신라는 고구려 공격에 대하여 더 이상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은 신라의 이러한 형편을 무시하고 당의 고구려 공격에 대하여 신라가 협공을 하기로 한 동맹사항을 상기시켰다. 이에 당은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 신라와 함께 예정대로 곧바로 고구려에 대하여 공격하였지만, 당의 기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의 내부정세 변화는 백제와 마찬가지로 문무왕으로 하여금 이전과 달리 고구려 공격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연개소문이 665년에 죽자 고구려 사회는 심각한 정권쟁탈전이 전개되면서 심각한 분열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의 내부분열로 이어졌으며, 곧 고구려의 운명을 재촉하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었다. 즉 문무왕은 고구려 내부의 노출된 약점을 인식하자마자 고구려 공격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 기이, 김유신조의 내용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려주고 있다. 백석 혹은 추남 이야기가 그것이다. 《삼국사기》의 기사와 달리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한 김유신의 의지를 다룬 내용으로 그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라가 고구려 침공을 주도

40) 김영하,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 309~310쪽.

41) 김수태, <문무왕>, 6~9쪽을 정리한 것이다.

적으로 결정하는데, 김유신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한편 666년에 들어와서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가 12성을 들어 신라에 투항한 사실은 문무왕의 그러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⁴²⁾

이에 문무왕은 대당외교를 새롭게 전개하였다. 666년 2월 천존의 아들 한림과 김유신의 아들 삼광이 당에 건너가 숙위하게 되었을 때 고구려 공격을 위한 당의 출병을 다시 요청하였다. 이때 문무왕은 이미 백제가 평정되었으므로, 다시 고구려를 멸망시키려 한다고 말하면서 당의 군대를 요청한 것이다.⁴³⁾ 이제 신라에 의해서 고구려 멸망이 비로소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통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다. 문무왕이 고구려가 멸망된 이후 이를 평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⁴⁴⁾ 왜냐하면 백제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는 신라의 적국이었기 때문이다.

문무왕의 요청을 받아들인 당은 666년 12월 이세적으로 하여금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667년 7월에 문무왕에게 고구려 정벌에 대한 협력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때 주목할 사실은 신라의 고위 장수들이 요동의 싸움에 나아갔다는 점일 것이다.⁴⁵⁾ 이것은 김춘추와 당 태종 사이에 평양 이남을 신라의 작전지역으로 설정하였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 신라가 군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평양 이남만 아니라 그만큼 크게 넓혀진 것이다. 그리고 신라는 단독으로 고구려를 쳐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42) 《삼국사기》 6, 문무왕 6년 12월.

43) 《삼국사기》 6, 문무왕 6년 2월.

44) 《삼국사기》 6, 문무왕 9년. 필자는 이때부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한 바가 있다(앞의 논문, 9쪽). 이를 수정하고자 한다.

45) 《삼국사기》 6, 문무왕 7년.

먼저 정탐을 여러 차례 보내는 한편, 당나라 군대의 동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⁴⁶⁾ 이를 바탕으로 문무왕은 군단편성을 새로이 하고 경주를 출발하여, 경기도 광주에서 이세적의 평양공격을 기다렸다. 그러나 평양을 공격하기로 한 이세적이 철군함으로써 문무왕의 의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668년에 들어오면 문무왕은 연정토를 당에 보내 고구려의 상황을 계속해서 전달하도록 하는 한편, 당나라 군대의 동정을 살폈다. 6월에 당이 고구려를 다시 공격하게 되자, 7월 평양에서 신라는 마침내 고구려와의 결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신라의 군대는 고구려의 멸망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문무왕이 설인귀에게 보낸 답서에 의하면 당시의 상황이 잘 서술되고 있다. “신라의 병마가 홀로 선봉이 되어 먼저 적의 대진을 격파하니 평양 성중은 예기가 꺾이고 기운이 퇴축되었다. 후에 이세적이 다시 신라의 날랜 기병 5백인을 이끌고 먼저 평양 성문에 쳐들어가 드디어 평양을 격파하였다.”는 것이다.⁴⁷⁾ 이와 같이 당나라가 아니라 신라의 주도에 의해서 백제에 이어, 고구려의 멸망이 마침내 이루어졌던 것이다.

Ⅲ. 삼국통일론의 형성과 신라 대국론

그러면 신라 삼국통일론 혹은 삼한통일론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의 문제를 계속해서 알아보자. 삼국통일전쟁론자에 의하면 7세기 중반인 651년 이후 당 태종을 비롯한 중국인들에 의해 삼한이 삼국을

46) 《삼국사기》 7, 문무왕 11년 및 노태돈, <‘삼국통일’이란 개념은 성립하는가?>, 31~32쪽.

47) 《삼국사기》 7, 문무왕 11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한다.⁴⁸⁾ 그리고 삼국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삼한 전체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것은 7세기 후반부터라고 한다. 그것의 구체적인 형성에 결정적 계기를 준 것은 삼국통일전쟁이었고, 이 전쟁이 낳은 중요한 역사적 성과물이 삼한통일론이라고 보았다. 역시 삼한은 삼국과 연결되는 용어로 인식되었는데, 삼국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동일체의식을 드러내는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신라가 삼한통일론을 보다 뚜렷이 의식화하게 된 것은 나당전쟁을 치루면서 685년 9월에 걸친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라고 설명한다. 그것이 삼국을 아우르는 단일국가를 만들겠다는 일통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신문왕 6년(686)에 세워진 청주의 운천동사적비를 통해서 신라인에 의해 삼국을 삼한으로 표현한 첫 예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삼국통일의식이 먼저 형성되고, 그리고 삼국을 통일한 다음 삼한통일의식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언급되는 삼국과 삼한은 서로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구별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백제통합전쟁론자는 삼국과 삼한은 처음부터 같은 것이 아니었으며, 삼국통일론과 삼한통일론 역시 구별된다고 주장한다.⁴⁹⁾ 여기에서는 삼한통일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삼한통일의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삼한통일의식은 고구려 멸망 이후 문무왕대 신라가 당과 싸워 백제를 통합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했다는 것이다. 역시 신라와 당과의 대립관계가 삼한통일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이때 ‘삼한’은 마한 변한 진한을 통칭하는 뜻으로, 고구려가 포함될 수는

48) 노태돈,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 38, 1982, 132쪽.

49) 김영하, 앞의 논문, 309~320쪽.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문왕대인 692년에 들어와서 신라와 당 사이에서 김춘추의 ‘태종’이란 칭호의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백제통합의 삼한통일론이 고구려를 포함하는 삼한통일론으로 전화했다는 것이다. 신라 조정이 태종무열왕의 위업으로 삼국통일을 내세워 ‘일통삼한’을 강조하면서 삼한이 삼국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삼한통일의식이 삼국통일의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을 통합하였다는 의미의 삼한통일의식은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하였다는 실제 사실의 반영이 아니라, 7세기 말의 정치 외교적 전개과정에서 과생된 일종의 허위의식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삼국통일전쟁론자는 백제통합전쟁론에서 주장하는 삼한통일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시 비판하였다.⁵⁰⁾

한편 최근에 들어오면 삼한통일의식은 신라 중대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청주의 운천동 사적비의 건립 시기에 대한 재검토로부터 시작되었다.⁵¹⁾ 운천동비가 신라 중대 초기 삼한통일의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나오는 사해(四海)라는 용어는 당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신라가 표방할 수 있는 천하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비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고려 태조가 후삼국통일전쟁을 진행하던 나말 여초의 상황에 부합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해란 용어는 중대 초기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제사조에 사해가 나오고 있으며, 그것은 백제 멸망 후, 어찌면 680년 직후 무렵에 사전을 중국식으로 정리하면서 편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50) 노태돈, <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338~343쪽.

51) 윤경진,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시기에 대한 재검토>을 참고할 것.

신라 사해 역시 당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지만 신라의 독자적인 천하관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것이다.⁵²⁾ 신라 중대에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 《상서》에서 여러 차례 사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⁵³⁾ 더욱이 《삼국유사》 기이, 문무왕 법민조에 의하면 문무왕은 차득공을 불러 백관을 다스리고 사해를 태평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무열왕에게 부여된 태종이란 칭호와 관련해서 그것이 ‘일통삼한’의 업적을 근거로 해서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⁵⁴⁾ 태종 칭호의 사용은 문무왕대가 아니라 신문왕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본래 무열왕계의 정통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인데, 원성왕의 즉위 이후 태조가 시조로 환원되면서 그러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태종 칭호를 사용하는 명분으로 ‘일통삼한’의 업적이 새롭게 강조되었다고 말한다. 때문에 태종 칭호 기사를 중대 초기의 삼한통일의를 설명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대에 들어와서 삼한통일 의식이 수립되는 단서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한다. 이때 신라사에서 삼한통일 의식의 형성은 나말여초가 아니라 신라 하대초로 더욱 소급된다.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통일신라시대의 묘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열왕릉비를 비롯해서 문무왕릉비, 김유신묘비, 김인문묘비가 보여주듯이 중대 초기라는 한정된 시기에 묘비가 잇달아 세워졌다는 사실이 지적되었

52) 김창겸, <신라 중사의 ‘사해’와 해양신앙> 《한국고대사연구》 47, 2007.

53) 김창겸, <중국 고전문헌에 보이는 ‘바다(海)’의 의미-《상서》를 중심으로- > 《동북아문화연구》 12, 2007, 245쪽.

54) 윤경진, <신라 중대 태종(무열왕) 시호의 추상과 재해석>을 참고할 것.

다.⁵⁵⁾ 그리고 <무열왕릉비>의 경우 비신은 현재 전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수에 ‘태종무열대왕지비’라는 제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신문왕대에 들어와서야 태종이란 칭호의 추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된다면 <문무왕릉비>이 만들어진 이후에야 <무열왕릉비>이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태종이란 칭호는 문무왕대에 이미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런데 삼한통일의식의 형성시기를 검토한 새로운 견해에서 보다 주목할 부분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태종 칭호관련 기록을 비교한 내용이다.⁵⁶⁾ 이를 항목별로 비교해서 《삼국유사》의 내용이 구체적인 반면, 《삼국사기》의 기록은 축약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삼국유사》의 사료가 원전에 가깝다는 심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일통삼한’ 혹은 ‘일통삼국’이라고 서로 달리 나오는 표현에 대해서도 본래 무열왕, 또는 문무왕의 업적은 ‘일통삼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백제통합전쟁론자에 의하면 삼한통일론에서 삼국통일론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⁵⁷⁾ 이것은 그와 달리, 삼국통일전쟁론자가 시사해주고 있듯이, 삼한통일론이란 삼국통일론에서 변화 발

55) 후보돈, <통일신라 (능)묘비에 대한 몇 가지 논의> 《목간과 문자》 9, 2012, 47~49쪽.

56) 윤경진, <신라 태종(무열왕) 시호 논변에 대한 자료적 검토-원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23~32쪽.

57) 조금은 다른 측면이지만, 후보돈 역시 <7세기 나당관계의 시말> 《영남학》 20, 2011, 169쪽에서 나당전쟁을 통해서 신라에 ‘일통삼한’하였다는 의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도 삼한이란 용어에 내재한 것도 원래는 그야말로 삼한에 지나지 않았으나, 통합이후 삼국을 의미하는 인식으로 점차 확대된 것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고 말한다.

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통일론과 삼한통일론을 서로 분리시켜 그것을 단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기록에서도 삼국통일론이 삼한통일론보다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 김유신전은 신라의 삼국병합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삼국통일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다.⁵⁸⁾ 그러나 이때 삼국이란 고구려와 백제 및 신라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611년 김유신이 17세의 나이로 홀로 중악 석굴에 들어가 신라를 침략한 적을 평정하겠다고 맹세하였을 때 그 대상은 고구려와 백제와 말같이였다.⁵⁹⁾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를 함께 일컫는 삼국이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신라의 삼국통일론이 이 무렵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까지도 신라는 이를 삼국통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직후인 669년에 나온 문무왕의 교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평정양국(平定兩國)’ 혹은 양적기평(兩敵既平)이라고 하여,⁶⁰⁾ 두 적국인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671년 문무왕이 설인귀에 보낸 답서에서도 역시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⁶¹⁾ 이는 백제통합론자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당시까지도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평정으로만 단순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⁶²⁾ 즉 신라는 삼국통일이 아니라, 신라의 적국인 양국, 즉 이국에 대한 평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671년에 들어오면 이러한 ‘양국평정’이 삼국통일로 달리 표

58) 노태돈, 앞의 논문, 331~334쪽.

59) 《삼국사기》 41, 김유신 상.

60) 《삼국사기》 6, 문무왕 9년.

61) 평정양국(平定兩國), 종시평양국(終始平兩國)이라고 언급된다.

62) 김영하, 앞의 논문, 306~309쪽.

현되고 있어 크게 주목된다. 한림랑 박문준은 김인문과 함께 당나라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당의 고종이 박문준을 불러 당의 신라공격이 실패한 이유를 물었을 때의 일이었다. 이때 박문준은 사천왕사의 창건과 함께 신라가 당의 도움을 받아서 삼국을 통일하였다는 ‘일통삼국’을 언급하고 있다.⁶³⁾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다는 기록으로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종족에 대한 그것보다도, 국가에 대한 통일을 의미하는 ‘일통삼국’이란 표현은 《삼국유사》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다.

신문왕 때에 당나라 고종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일렀다. “나의 성 고이신 당 태종께서 어진 신하 위징과 이순풍 등을 얻어서 마음을 합하고 덕을 같이 하여 천하를 통일하였다(一統天下). 그래서 태종황제라 했지만, 너희 신라는 해외의 작은 나라로서 태종이란 칭호를 사용하여 천자의 칭호를 참람하게 씀은, 그 뜻이 불충한 데에 있으니 속히 그 칭호를 고치라.” 신라왕은 글을 올려 답했다.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거룩한 신하 김유신을 얻어서 삼국을 통일했으므로(一統三國) 태종이라고 한 것입니다.”(《삼국유사》 기이 2, 태종 춘추공)

역시 당 고종대의 일로 언급되고 있다. 이때 ‘일통삼국’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매우 주목해야 할 기록이다. 신라는 당나라가 제기한 무열왕의 태종 칭호 사용 시비에 대해서 당 태종이 천하를 통일하였듯이, 신라도 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했으므로 태종이라 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때 천하와 삼국이 서로 대비되어 사용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⁶⁴⁾ 당의 천하통일이 의미가 있듯이 신라의 삼국통일 역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아마도 당의 천하 가운데에서 신라가 그 한 부분인 삼국을 통일한 것이라는 의미

63) 《삼국유사》 기이 2, 문호왕 법민.

64) 윤경진, 앞의 논문을 참고할 것.

일 것이다. 신라는 천하를 통일한 것이 아니라 삼국을 통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통삼국’이란 중국의 천하관을 의식한 신라의 천하관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사실은 당 태종이 그러하듯이 무열왕 역시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을 통일하였기에 태종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점이다. 이는 통일왕조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신라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사에서 새롭게 등장한 당이라는 통일왕조처럼 한국사에서도 삼국을 통일한 왕조인 신라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무왕이 양국을 평정하였다는 인식과는 크게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가 무열왕에 대해서 태종이란 칭호를 사용하는 시점에 이르면 삼국통일이라는 인식이 비로소 형성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⁶⁵⁾

그 시기는 태종무열왕의 묘비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⁶⁶⁾ 여기에서도 태종이란 칭호가 원래 삼한통일의식과는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묘비의 제작 시기는 어쩌면 신라와 당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을 때보다 오히려 긴장관계가 고조되던 때의 일로서, 웅진의 취리산 회맹이 있던 665년 무렵으로 상정하였다. 신라가 중국의 태종 칭호를 사용하면서 당나라에 대한 반발의 의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는 역시 또 다른 시기로 언급된, 고구려멸망 직후인 668년부터

65) 《삼국유사》 기이 2, 태종춘추공조에서는 태종 무열왕의 즉위와 관련해서 ‘병육합(并六合)’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육합이란 천지와 사방을 말한다. 이는 태종무열왕이 천하를 통일할 인물임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삼국이 아니라, 육합, 즉 천하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삼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66) 후보돈, 앞의 논문, 47~49쪽.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한 676년 사이에서 살피는 것이 보다 타당할 듯하다. 왜냐하면 삼국통일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가 671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신라는 무열왕에 대해서 태종이란 칭호를 붙이며 신라의 삼국통일을 새롭게 강조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신라의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당나라의 삼국 이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삼국이란 용어는 643년 김춘추의 대고구려외교가 실패한 다음 해에 이루어진 신라의 대당외교에서 처음 보인다. 당 태종이 신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고구려와 백제에 자주 사신을 보내어 삼국이 친하게 지내라는 요구하였다는 것이다.⁶⁷⁾ 이때 삼국이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였다. 그리고 잘 알려지고 있듯이, 651년 당나라 태종이 백제 의자왕에게 신라와의 전쟁을 중지할 것을 권하는 말 가운데 해동삼국이라고 나온다.⁶⁸⁾ 이 역시 삼국을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670년대에 들어와서 신라가 삼국통일론을 언급하였다는 것은 이 무렵까지도 신라가 당나라에 의하여 그와 같이 설정되었던 삼국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신라에게 백제와 고구려는 모두 적국이었으며, 평정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신라가 당 태종이 사용한 삼국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당이 그렇게 인식하였듯이 이제 신라의 현실도 삼국을 통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당의 천하관에 대응해서 신라의 천하관으로 삼국을 강조하였다는 것은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와

67) 《삼국사기》 5, 선덕왕 12년.

68) 노태돈,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 132쪽.

신라를 분리시켜 지배하려는 당의 움직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는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서 당 태종과 신라의 김춘추 사이에 맺은 평양 이남과 백제토지에 대한 신라의 지배를 인정하라는 주장으로 압축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670년대에 들어와서 달라진 국제질서의 변화가 신라의 새로운 천하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실익도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⁶⁹⁾ 전쟁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게는 별다른 현상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신라 내부로 향하게 될 때 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와의 전쟁을 벌였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라 중대 정권은 응답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 신라에까지 자기 주도하의 국제질서로 포함시켜 편성하려고 하였다. 이른바 기미정책이었다.⁷⁰⁾ 이 역시 당나라가 대국이라는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옛 백제지역의 상황은 백제가 하나의 국가로 다시 부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⁷¹⁾ 이러한 사실은 문무왕에게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결코 신라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고구려 멸망 직후부터 신라는 새로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태종 무열왕과 당 태종이 맺었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당이 추구

69) 김수태, <문무왕>, 10~16쪽을 참고할 것.

70) 위진남북조시대의 막부체제와 다른 수와 당의 기미부 체제에 대해서는 김한규, 《천하국가》, 2005를 참고할 것.

71) 《삼국사기》 7, 문무왕 11년.

하는 외교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는 한 신라와 당의 외교관계란 수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문무왕은 신라와 당이 일종의 군사동맹을 맺었을 때의 약속을 따라서 신라의 영토로 평양 이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신라의 목표는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확보하는 것이었다.

신라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다. 670년에 들어와서 신라는 취리산 회맹을 통해서 획득한 옛 백제 지역만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옛 백제지역 전부를 실질적으로 신라의 영토로 만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갔다.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세력과의 연결해 갔다. 고구려 멸망 후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부흥운동을 저지하려던 정책에서 고구려 부흥군에 대한 지원으로 바꾸었던 것이다.⁷²⁾ 또한 신라는 고구려 유민들을 포섭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신라의 이러한 정책으로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고구려 왕족인 안승을 금마저에 정착시켜 고구려왕으로 책봉한 다음, 고구려 유민을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이는 당의 기미정책에 대한 신라 나름의 대응방법이었다. 당나라와 마찬가지로 신라 역시 고구려라는 번국을 두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리고 671년에는 부여에다가 소부리주를 설치함으로써 백제가 더 이상 당의 일부가 아니라, 신라에 속한 하나의 주일뿐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였다. 그것은 당나라가 옛 백제 지역에 실시한 기미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음을 말한다. 한편 신라가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자신의 독자적인 힘으로, 즉 이제는 당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백제와 고구려까지 포함하는 삼국으로 통일하였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일통삼국’이란 말 그대로 삼국이 하나로 합쳐

72) 김수태,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 유민지배> 《이기백기념사학논총》, 일조각, 1994.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에 대한 신라의 역사인식이 양국평정론이 아니라 삼국통일론으로 전환되었다. 다시 말해서 신라의 삼국통일론은 늦어도 나당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671년 무렵에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하겠다.⁷³⁾ 즉 신라는 660년 백제의 멸망과 668년 고구려의 멸망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옛 백제지역을 완전히 병합하고, 금마저에 고구려 유민들에 의한 고구려국을 건설한 사실에 보다 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당시 신라가 이와 같이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백제와 고구려와의 전쟁을 거치는 동안 이루어진 국가적 성장이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또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신라가 드러내는 자신감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는 이를 바탕으로 당나라와 대등한 관계로서 신라의 국제적인 위치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신라가 스스로를 이제는 이전의 소국이 아니라 대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에서 살필 수 있다. 661년 당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고구려 공격에 참여하게 된 신라의 김유신은 백제부흥운동군이 길을 막자 백제가 대국에 멸망당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 대국에는 신라까지 포함시켜도 좋을 것이다.⁷⁴⁾ 이 보다 분명한 사실은 670년 망명해온 안승집단이 신라를 대국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⁷⁵⁾ 이는 670년대에 들어와서 크게 달라진 신라의 국제적인 위치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73) 나당전쟁이 일어난 시기에 대한 정리는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2012, 86~89쪽을 참고할 것. 여기에서는 669년에 철저한 전쟁준비를 진행하였고, 670년 초에는 요동 선제공격에 나섰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개시시점은 역시 670년대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74) 《삼국사기》 42, 김유신전 중. 한편 웅진도독으로 부임한 부여웅은 당시 신라를 강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도 참고가 될 것이다(《삼국사기》 28, 의자왕 20년).

75) 《삼국사기》 6, 문무왕 10년.

신라는 소국이 아니라 대국이라는 천하관을 새롭게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신라 국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자기인식을 통해서이다. 신라는 당과 마찬가지로 태종 칭호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문무왕릉비>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듯이 자신의 직계 조상이 중국의 삼황오제에까지 연결되는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⁷⁶⁾ 그리고 태종 무열왕의 왕비에 대해서도 문명황후라고 하여⁷⁷⁾ 황후라 칭하고 있다. 신라의 국왕도 중국의 황제와 대등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에 못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문무왕이 폐하 혹은 짐으로도 불리었음을 알려주고 있다든지,⁷⁸⁾ 문무왕이 궁궐을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게 다시 수리하였다는 것도 그러한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다.⁷⁹⁾ 이에 신라가 황제국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⁸⁰⁾ 이는 <익산미륵사서탑사리함>의 명문에 백제의 국왕이 ‘대왕폐하’라고 불린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삼국통일론에서 보여준 신라의 천하관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당나라에게 이렇게 달라진 신라의 국제적인 지위에 맞는 대우와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신라는 삼국통일론이란 새로운 천하관을 가진 다음 계속해서 삼한통일론을 새롭게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가의 통일이 아니라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종족의 통일을 언급하게 된 것이다. 삼

76) 주보돈, 앞의 논문, 41~42쪽. 그리고 이문기, <신라 김씨왕실의 소호금천 씨 출자관념의 표방과 그 성격> 《역사교육논집》 23·24, 1999를 참고할 것.

77) 《삼국유사》 기이 2, 태종 춘추공.

78) 《삼국유사》 기이 2, 문호왕 법민.

79) 《삼국사기》 7, 문무왕 19년.

80) 김창겸, <신라 국왕의 황제적 지위> 《신라사학보》 2, 2004, 218~227쪽.

한통일론은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673년 김유신의 죽음을 앞둔 시기의 일이다. 김유신은 이때 “삼한이 한 집안이 되고, 백성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니, 비록 태평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라고 하여 ‘삼한일가(三韓一家)’를 말하면서 신라의 안정과 번영을 바랐다. ‘삼한일통’이라고는 표현되고 있지는 않다. 《삼국유사》 미추왕·죽엽군 기사를 보면 김유신은 ‘광합지공(匡合之功)’을 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⁸¹⁾ 이는 김유신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삼한통일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 효소왕대 죽지랑 기사를 보면 죽지가 김유신을 도와서 활동하면서 ‘일통삼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데에서 이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김유신전은 신라에서 삼국통일론을 거치면서 삼한통일론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⁸²⁾

이것은 선덕왕대 황룡사 9층탑을 만들면서 9한(九韓)을 언급한 것과는 다르다.⁸³⁾ 당시까지도 신라에서 삼한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이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삼국유사》를 보면 이 보다 빠른 시점에서 삼한을 언급하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통일기 이후에 그 전대를 회상하며 서술하는 것이거나, 결과를 기술하는 형식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삼국을 삼한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⁸⁴⁾ 또한 673년 이후의 기록을 보면 삼국통일

81) 이는 <문무왕릉비>에 나오는 “구합일광(九合一匡) 동정서□(東征西□)”의 의미와도 통한다. 9주를 아우르고 동서를 정토했다는 것이다(김영하, 앞의 논문, 306쪽).

82) 노태돈에 의하면 신문왕대인 680년 초에 삼한통일의식이 대두하는 것으로 상정해볼 수 있다고 한다(<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341~342쪽).

83) 《삼국유사》 5, 황룡사 구층탑.

84) 노태돈,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 134쪽.

론보다는 삼한통일론이 강조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삼국통일론에 이어 삼한통일론이 새롭게 강조된 것은 우선 대외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 당나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신라의 입장에서 삼국인들의 단결을 바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이를 지향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⁸⁵⁾ 이러한 점은 신라 왕호와 관련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 국왕은 대왕이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황제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문무왕릉비>에 보이듯이 문무왕은 자신을 대왕, 당 태종은 황제로 구별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무왕대 대왕폐하의 의미를 살핀 연구가 주목된다.⁸⁶⁾ 최근 발견된 <예군묘지명>에 나오는 백제가 황제를 참칭했다는 기사와 연결시켜서, 백제가 대외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황제로까지 칭하였고 보았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황제처럼 군림하면서, 대외적으로 중국에 대해 제후국 입장을 취한 것은 백제 왕의 이중적인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진다는 사실은 이 역시 신라의 복합적인 천하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때 신라가 백제처럼 대내적으로 황제처럼 군림하고자 했다는 것은 역시 중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삼국의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삼국이 연원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삼한통일론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삼국통일론에 이어 삼한통일론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대내적인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삼국통

85) 노태돈, 앞의 논문, 134쪽.

86) 노중국, <백제사의 몇 가지 문제> 《신라사학보》 27, 2013, 62~64쪽.

일론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내부의 통일이 요구되는 일은 당연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통일왕조를 강조한 신라에게 삼국통일론이란 외형적인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삼한통일론은 그 내부의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논리였기 때문이다.⁸⁷⁾ 사실 그러한 내부의 통일 없이는 삼국의 진정한 통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국내적으로 보아도 오랜 전쟁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인 후유증을 수습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한통일론이란 세 개 국가의 단순한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삼국이 서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질적인 집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동질적이던 세 나라의 영토와 그 주민을 합친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삼한통일론이었던 것이다.⁸⁸⁾ 이에 삼한통일론은 삼국통일론을 보강해주는 이론으로 작용하였으며, 이후 그것은 서로 맞물리면서 전개되어 나갔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삼국통일론과 삼한통일론은 혼용되면서 사용되었을 것이며, 아마도 삼한통일론 안으로 삼국통일론이 들어가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백제통합전쟁론자에 의하면 김유신이 언급한 삼한에는 고구려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국통일전쟁론자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신라는 당나라 태종의 칭호를 사용하였듯이, 이 경우에도 당 태종이 의자왕에게 삼국이 삼한과 같다고 언급한 내용까지를 빌렸던 것으로 생각된다.⁸⁹⁾ 《구당서》 신라전에 의하

87) 윤경진, <신라 중대 태종(무열왕) 시호의 추상과 재해석>, 215~216쪽에 서는 개념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일통삼국’이란 말 그 대로 당시 존재하던 세 나라를 통합했다는 현상적 인식이지만, ‘일통삼한’은 삼국에 선행한 삼한을 공통의 연원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며, 곧 역사적 관점에서 ‘동질성’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88) 노태돈, <‘삼국통일’이란 개념은 성립하는가?>, 33~37쪽.

89) 이에 대해서는 조영광 역시 삼국=삼한 의식은 현전하는 자료에 의거하는 한 중국에서 먼저 시작되어 후에 신라와 일본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져

면 “그 풍속과 형벌 및 의복이 고려 및 백제와 대개 같다.”고 언급되는 내용은 바로 이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삼국=삼한인식이 신라에 의하여 처음 강조될 때 고구려의 마한계승이 형성되지 않았을 까도 생각된다. 왜냐하면 신라 금마저에 안승을 안치시켜 고구려국으로 세웠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서 고구려의 마한계승의식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⁹⁰⁾

신라는 삼국통일론에 이어 등장한 삼한통일론을 구체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삼국에 대한 실제적인 통합정책을 시행해야만 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를 다루고 있다.⁹¹⁾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들어본다면, 우선 674년에 들어와서 삼국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행된 외위제의 소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백제유민이나 고구려 유민을 원신라인과 신분제의 운영에서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⁹²⁾ 고구려와 백제, 신라 지역에 각각 3개씩, 모두 9주로 편제한 지방통치조직 역시 신라의 통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685년에 마무리되지만, 그것은 문무왕대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진행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역시 중국의 천하관을 의식한 것으로, 신라 나름대로의 천하질서를 추구하고 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다.⁹³⁾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

후대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조영광, <7세기 중국인들의 대고구려 ‘삼한’ 호칭에 관하여> 《백산학보》 81, 2008, 127~153쪽).

90) 조법종, <고구려의 마한계승 인식론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102, 1998, 68~73쪽. 삼국과 삼한을 동일시한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5도독부의 하나로 마한도독부를 설치하려고 한 것에 대한 대처였는지도 알 수 없다.

91) 노태돈,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 136~140쪽.

92) 김수태, <신라 문무왕대의 대북속민정책> 《신라문화》 16, 1999.

93) 이기백, 《한국사강좌》 고대편, 1982, 336쪽. 이는 중국의 옛날 우왕 때의 9주에 모범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

국의 명산대천을 대사·중사·소사로 나눈 제사체계를 정비한 것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 모두는 결국 신라의 삼국통일론에서 나온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라는 삼국통일론을 더욱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IV. 삼국통일론의 실질적인 추구

나당전쟁과 함께 형성되고 발전된 삼국통일론은 이후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던 것일까. 신라가 주장한 삼국통일론이 신라의 의도대로 당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제대로 추구되었던 것일까 하는 문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대내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신문왕대를 주목하고 있다. 신문왕대에 들어와서 684년 보덕국이 소멸되어 금마군이 되고, 그 다음 해인 685년에 청주를 설치하여 9주 체제를 비로소 갖추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⁹⁴⁾ 이는 사실상 삼국 통합의 종료 선언으로서 일통삼한, 달리 말하면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완전히 장악하였음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로써 신라의 삼국통일론이 달성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내외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언급하지만, 그것은 신라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신라가 삼국통일론을 제기하면서 설정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주 체제가 완비되었다고 하더라도 고구려에 속한다고 비정된 영토가

94) 후보돈, <신라의 ‘동경’과 그 의미>, 65쪽.

운데 나당전쟁의 승리 결과로서 새로이 확보된 지역은 거의 없었다.⁹⁵⁾ 이미 오래 전에 신라 영역으로 편입되어 있던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멸망기 고구려 영역의 거의 전부는 당나라가 장악하고 있던 상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9주 체제의 완비시기를 통해서 신라의 삼국통일론이 제대로 추구되었다고 설명할 수 없다.

신라의 삼국통일론은 그러한 대내적인 요소보다는 당과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추구될 문제였다. 나당관계라는 대외적인 부분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한 676년이란 시기를 일반적으로 들기도 한다. 668년 고구려의 멸망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만, 676년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신라가 대체로 대동강과 원산만을 긋는 선 이남의 땅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신라가 이때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라는 것이다.⁹⁶⁾ 이와 같이 나당전쟁의 승리에 삼국통일론을 초점을 맞출 경우 삼국통일의 시점은 668년이 아니라 676년으로 파악하는 견해까지 나오게 된다.⁹⁷⁾

이러한 견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되고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론과 일제 식민주의사학과의 연관성이 언급되었기 때문이다.⁹⁸⁾ 또한 이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통일신라’의 표상이란 근대의 발명품이라고까지 이해되고 있다.⁹⁹⁾ 그러나 신라의

95) 주보돈, 위의 논문, 65~66쪽.

96) 이기백, 앞의 책, 281~301쪽.

97) 변태섭은 676년에 신라는 반도 안에서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한국사통론》, 1986, 116쪽). 삼국통일의 시점을 조금 늦추어 보고 있는 것이다.

98) 김영하, <신라통일론의 궤적과 함의> 《한국사연구》 153, 2011, 40~45쪽.

99) 윤선태, 앞의 논문을 참고할 것. 통일신라라는 호칭에 대한 또 다른 논의로는 이호영, <‘통일신라’ 호칭문제> 《백산학보》 52, 1999가 있다.

삼국통일론이 일제 식민주의사학의 소산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은 이미 나와 있다.¹⁰⁰⁾ 나당전쟁을 거쳐 당 세력을 축출한 676년을 핵심적인 기점으로 하는 삼국통일론이 일제 식민주의사학과도 무조건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두고 싶다. 그리고 같은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시각과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면 더욱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더욱이 전통시대의 일통삼한론 또는 신라정통론이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에서 기점을 찾았다는 점도 삼국통일론이 양국 평정론에서 발전된 것이라는 점에서 따를 수 없다.

통일신라라는 시대구분이 신라인들의 ‘일통삼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곧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신라는 수나라에 이어 중국을 실질적으로 통일한 왕조인 당나라를 의식하여 자신의 왕조 또한 비로소 삼국을 통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신라는 스스로를 통일왕조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신라의 중국사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통일왕조의 등장이 가지는 의미를 비롯해서, 그것을 의식한 신라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후대적인 용어라도 하더라도, 통일신라로 불리어도 좋지 않을까 한다. 비록 고구려의 옛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사에서 첫 통일왕조가 가지는 의미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⁰¹⁾

그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676년 신라가 나당전쟁에서 승리한 시점을 삼국통일의 완성 혹은 시작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통해서 당 태종과 신라 김춘추 사이에 맺어진 밀약의 내용이 제대로 달성되었는

100) 노태돈, <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343~345쪽.

101)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후기신라’라는 용어도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라가 통일에 기울인 사실들에 대한 역사적 과정과 의미가 실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의 여부이다. 나당전쟁을 통해서 신라가 설정한 목표는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견해를 따라서 대동강과 원산을 잇은 이남의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권이 확립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였다. 9주의 범위가 그러하였듯이 신라는 676년 나당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임진강 이북 대동강 이남 지역은 일종의 완충지대로 방치해두었다가 성덕왕대인 735년 이후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군현을 설치하여 경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⁰²⁾ 이러한 사실은 676년 역시 신라의 삼국통일론에서 본다면 여전히 미완성임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나당전쟁 이후 신라가 획득한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당나라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676년 나당전쟁의 승리로 신라가 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지만, 성덕왕 34년(735)에 당나라가 패강, 즉 대동강을 경계로 하여 그 이남에 대한 신라의 영유를 공인하게 되었고, 신라의 반도 통일이 성취되었다는 견해가 매우 주목된다.¹⁰³⁾ 잘 알려지고 있듯이 성덕왕대 신라의 요청을 당나라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은 문무왕대 신라가 당나라에 대해서 삼국통일론을 제기한 이래 추구한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들어와서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신라의 삼국통일론이 실질적으로 추구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신문왕대 이후 성덕왕대에 이르기까지 신라는 삼국통일론의 실질적인 추구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것

102) 노태돈, 위의 논문, 333~334쪽.

103) 한우근, 《한국통사》(개정판), 1987, 82쪽. 한편 이기동의 교시에 의하면 한우근은 《한국통사》 초판본을 저술할 시점에서는 남북국시대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개정판에서는 달라졌다고 한다.

이다. 다시 말해서 676년 이후에도 신라의 천하관과 당의 천하관은 대립 충돌하였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시기는 바로 성덕왕 대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신라와 당나라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676년 이후 신라의 삼국통일론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당전쟁은 676년 신라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를 통해서 신라는 한반도 내에서 당 세력을 축출하고 독립된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다.¹⁰⁴⁾ 그것은 그러한 단순한 의미에만 머물지 않는다. 신라의 승리는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서 국제질서가 개편되는 중요한 한 계기를 마련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국제질서가 열리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당이 추진하였던 기미정책이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새로이 형성되는 국제질서는 당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아니라 당과 신라를 중심으로 발해와 일본이 참여하면서 상호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 변경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신라는 당에게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거세게 제기하였다.

나당전쟁에서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는 이러한 신라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신문왕이 즉위한 직후인 681년에¹⁰⁵⁾ 들어와서 당나라는 신라가 무열왕에게 부여한 태종 칭호의 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신라가 당 태종의 천하통일을 강조

104) 김수태, <문무왕>, 15~16쪽.

105) 김영하,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 316쪽에서는 692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태돈은 앞의 논문, 341~342쪽에서 그 시기는 681년으로 이해한다. 채미하는 후자를 지지하고 있다(<신라의 오묘제 시정과 신문왕 권> 《백산학보》 70, 2004, 285~286쪽).

하면서 무열왕을 이러한 태종과 연관시켜 삼국통일론을 언급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삼국유사》 태종 춘추공조에 의하면 당 고종은 신라를 ‘해외소국(海外小國)’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라가 대당 청병외교를 벌였던 시작부터 당이 신라에 보여준 일관된 입장이었다. 크게 변화된 신라의 국제적 지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의 고종이 새롭게 즉위한 신문왕에게 사신을 보낸 것은 신라로 하여금 당의 태도변화를 요구한 것이며, 동시에 문무왕과 달리 신문왕을 통해서 신라와의 관계를 개선시켜 보려는 의도로도 이해된다.

신라 역시 당나라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신문왕은 태종 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한 임금이었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였다.¹⁰⁶⁾ 이와 함께 김유신 역시 그러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나갔다. 이때 김유신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김유신비가 태종 무열왕비와, 문무왕릉비에 이어 만들어진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¹⁰⁷⁾ 문무왕은 김유신이 사망하자 그의 비를 세우기를 명령하였다. 여기에는 삼한통일론과 함께, 이들이 삼국통일의 두 주역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것은 687년에 오묘제를 시행하면서도 신문왕이 태종 칭호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도 살필 수 있다.¹⁰⁸⁾ 신문왕에게 그것은 당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와서 잘 지적되고 있듯이 신문왕 역시 문무왕이 추구한 천하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신문왕이 9주 체제를 비로소 완성했다는 사실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한편 달구벌로의 천도 역시 신라

106) <삼국사기> 8, 신문왕 12년.

107) 주보돈, <통일신라의 (능)묘비에 대한 몇 가지 논의>, 49~52쪽.

108) <삼국사기> 8, 신문왕 7년.

가 명실상부한 천자적(황제적) 위상을 가지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나와 있다.¹⁰⁹⁾

신문왕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즉위의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무왕의 유조를 따라 행해진 신문왕의 즉위의례는 당나라 태종이 행하였던 구전(柩前)즉위의례였던 것이다.¹¹⁰⁾ 또한 신문왕이 올린 문무왕이란 시호 역시 그러하다. 「문무왕릉비」을 보면 ‘태종문무성황제(太宗文武聖皇帝)’라고 당 태종을 칭하고 있다. 신문왕은 무열왕이 태종에 비교되었듯이, 문무왕을 당 태종과 같은 인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무왕 역시 무열왕과 같은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왕 역시 폐하로 불리었던 것도 들 수 있을 것이다.¹¹¹⁾ 더 나아가 신문왕이 김흠운의 딸과 행한 혼인의례가 당나라의 황제가 행하던 유교적 혼인의례를 처음으로 신라에 적용한 것이라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¹¹²⁾

이와 함께 신문왕은 문무왕대에 이어 삼국통일론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갔다. 신문왕대의 삼국통일론과 삼한통일론과 관련된 기록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신문왕이 즉위한 직후에는 삼국통일론이 강조되다가 이후에는 삼한통일론이 보다 빈번하게 언급된다는 점이다. 당나라와의 태종 칭호 분류 기록을 볼 때 《삼국유사》에서는 ‘일통삼국’이었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일통삼한’으로 나오기 때문이다.¹¹³⁾ 이에 대해서 《삼국사기》가 일통삼국을 일통삼한으로 고쳐 정리하였

109) 김창겸, 앞의 논문, 223쪽 및 전덕재, <신라의 대외인식과 천하관> <역사문화연구> 20, 2004, 237쪽.

110) 채미하, <한국고대의 빈과 즉위의례>, 신라사학회 발표문, 2014.

111) 《삼국유사》 2, 기이, 만파식적 및 5, 해동강릉.

112) 김수태, <신라 신문왕대 국왕 친영례의 시행> 《신라사학보》 29, 2013.

113) 《삼국사기》 8, 신문왕 12년 및 《삼국유사》 기이 2, 태종 춘추공.

다는 견해도 나와 있다.¹¹⁴⁾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삼국유사》에서도 신문왕대 삼한통일론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682년에 신문왕의 감은사 방문과 관련하여 문무왕과 김유신이 함께 언급되었다. 이때 문무왕이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삼한을 수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데, 삼한통일론을 언급한 것이다.¹¹⁵⁾ 이는 《삼국사기》 김유신전에서 김유신이 문무왕에게 당부한 삼한통일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686년 9주 가운데 마지막으로 설치된 청주의 운천동 사적비에 삼한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또 다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682년이란 시기를 고려할 때 이때 강조된 삼한통일론은 역시 삼국통일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신라의 내부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후 신라가 보덕국을 소멸시켰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삼한통일론에서 나온 것이다. 국가의 형태를 갖춘 고구려를 번국(藩國)으로 두어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백제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소멸시켜 신라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통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신라의 국가적 성장에서 나온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신라는 보덕국의 반발이 일어나자, 신라는 이를 진압하고 9주 체제를 완성시켜 나갔던 것이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주가 아니라 군으로 편입해버렸다. 이와 같이 신문왕대에도 신라의 삼국통일론은 계속적으로 추구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신문왕대 말기에 이르면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는 서로 타협을 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신문왕 역시 문

114) 윤경진, <신라 태종(무열왕) 시호 논변에 대한 자료적 검토>, 30쪽. 여기에서 신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일통삼국에서 일통삼한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115) 《삼국유사》 2, 기이, 만과식적.

무왕과 마찬가지로 대왕으로,¹¹⁶⁾ 황제로 칭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나라 고종이 태종 칭호 사용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서 신라를 소국이라고 지칭하자, 신문왕은 신라가 소국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¹¹⁷⁾ 이런 가운데 687년 이후의 변화가 주목된다. 신문왕은 오묘제를 시행하면서 제후의 예를 따른 것은 보다 변화된 신라의 입장을 보여주었다.¹¹⁸⁾ 이전과 달라진 신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당의 경우에서도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와는 달리 《삼국유사》 태종 춘추공조는 당나라가 사신을 보내어 태종의 칭호를 고치지 않아도 좋다고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신라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일단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와 당의 변화는 김인문의 귀국을 통해서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외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인문의 귀국결정은 신문왕대 말년인 691년과 692년에 마침내 이루어지는데, 이는 신라와 당의 나당관계 개선을 위한 타협의 산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¹¹⁹⁾ 여기에는 신문왕대 이루어진 신라와 당의 활발한 문물교류를 통해서 살필 수 있지만, 상호관계 개선을 위한 두 나라의 상호 노력 또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사항은 신라의 대동강 이남 지배에 대한 당이

116) 《삼국유사》 2, 기이, 만과식적.

117) 《삼국사기》 8, 신문왕 12년. 그러나 이는 당에 대한 외교적 수사로 보인다.

118) 채미하, <신라의 오묘제 시정과 신문왕권>, 291쪽에서 오묘제사의 제문 양식이 교서가 아니라 조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역시 당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묘제사에서 신문왕이 스스로를 ‘왕모’라고 칭한 것은 천자국에 대한 제후국이라는 의미에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채미하, 위의 논문, 284쪽).

119) 김수태, <나당관계의 변화와 김인문> <백산학보》 52, 1999.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신문왕대에 나오지 않았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풀린 것은 성덕왕의 대당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덕왕대 신라의 대당외교는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다. 신라 전 기간에 걸쳐 진행된 대당외교 가운데 1/3이 성덕왕대 추진되었던 것이다.¹²⁰⁾ 그러나 신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목표는 쉽게 달성되지 못하였다. 발해 및 일본과 관련해서 새로운 국제관계가 전개되는 등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성덕왕 12년인 713년의 일이었다. 당나라가 발해와 국교를 수립하고, 그 8개월 후 성덕왕에 대해서 책봉하였는데, 그것은 당의 기미정 책에서 나온 것이었다.¹²¹⁾ 신라를 계림주, 발해를 홀한주로 삼았던 것이다. 663년 백제가 멸망된 직후 당은 신라를 계림주로 편제하였지만, 그것은 신라의 반발로 유명무실해졌던 것이 다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제 당에 의하여 신라는 발해와 비슷한 국제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발해와 일본이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도 들 수 있다. 727년 발해 무왕은 일본에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그 유속(遺俗)을 이었다는 국서를 보냈던 것이다. 발해의 고구려 계승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¹²²⁾ 이는 기존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731년에 들어오면 일본이 신라의 동쪽 변경을 습격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다.¹²³⁾ 따

120) 성덕왕대의 대당외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권덕영, <남북국시대의 견당사 관련기록> 《고대 한중외교사》, 1997, 45~60쪽을 참고할 것.

121) 김종복, <당과의 국교수립>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2009, 90~98쪽.

122) 노태돈, <대발해 일본국서에서 운위한 '고려구기'에 대하여> 《변태섭 기념사학논총》, 1985, 623쪽.

123) 전덕재, <신라 중대 대일외교의 추이와 진골귀족의 동향> 《한국사론》 37, 1997, 21쪽.

라서 신라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이러한 변화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을 것이다.

이는 당과 신라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던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금까지 신라가 추구해온 삼국통일론과도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까지를 통일했다는 신라의 삼국통일론이 발해가 새롭게 표방한 고구려계승의 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신라와 발해가 마치 남북국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신라 중대 정권의 발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⁴⁾ 그러나 신라는 이러한 변화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과 나당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신라의 위치가 크게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신라는 자신이 고구려까지를 통일한 명실상부한 정통왕조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성덕왕대 신라의 대당외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때 발해와 당나라의 대립관계의 형성은 신라와 당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726년 대문예가 당나라로 망명하자, 발해는 거둬 사신을 보내어 대문예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발해로 하여금 대당강경노선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으며, 732년 9월에 이르러 당의 등주를 공격하기에 이르게 되었다.¹²⁵⁾ 발해가 당과 군사적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다.

124) 이는 최치원이 신라가 발해를 북국으로 불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신라가 동족의식을 나타내는 견지에서 사용한 용어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이기백, 《한국사강좌》 고대편, 306쪽). 왜냐하면 신라는 당나라를 서국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25) 김종복, <정치세력의 분화와 대당강경책>, 앞의 책, 121~128쪽.

726년 이래 당나라는 발해와 대립하게 되자 신라와의 외교관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731년 2월 신라는 김지량을 당나라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는데, 현종이 조서를 주어 돌려보냈을 때 당나라의 주목할 만한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서에 ‘삼한은 선린(善隣)이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삼한은 바로 신라를 가리키고 있다.¹²⁶⁾ 이것은 《수서》에서 삼한을 고구려의 별칭으로 사용한 용례를 연상시키고 있다. 당시 삼한이 지칭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고구려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구려인들이 스스로 삼한이라 자칭한 예는 현전하는 기록상으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더욱이 당 태종이 삼국을 삼한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을 들어서 이러한 고구려=삼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¹²⁷⁾

그러나 이후 중국 측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한 견해는 삼한이 요동 지역 또는 고구려를 지칭하는 것을 알려주는 풍부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당나라의 기록에서도 찾아진다고 한다.¹²⁸⁾ 그렇다면 삼한이란 삼국과 동일시되기 이전에 고구려를 지칭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126) 《삼국사기》 8, 성덕왕 30년.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1991, 143쪽. 최근 다시 나온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2, 2011, 235쪽에서는 ‘삼한이 사이 좋게 잘 지내’라고 하여, 삼한이 삼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되고 있다.

127) 노태돈,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 130~131쪽.

128) 조법중, 앞의 논문, 51~53쪽. 권덕영, <당 묘지의 고대 한반도 삼국에 대한 표기 검토> 《고구려 백제 유민 묘지명의 검토》, 2014, 59~65쪽에 의하면 당대 묘지에서 삼한은 총 39회 사용되었는데, 고구려를 지칭하는 경우가 33회로 가장 빈도가 많았으며, 이어서 백제가 4회, 신라가 2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마한은 고구려 2회, 백제 1회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즉 삼한은 고구려를 지칭하는 말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대 묘지명을 보더라도 당나라에 의해서도 삼국=삼한의 의식과 함께 고구려=삼한 의식이 복합적으로 공존했음을 알려준다. 이 밖에 조영광, 앞의 논문도 함께 참고할 것.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성덕왕대 신라가 당나라에 의해서 이제 삼한으로 지칭되었다는 것은 당이 신라를 대하는 입장이 크게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⁹⁾ 이것은 당나라에 의해서 이제 신라가 고구려가 차지했던 국제적인 위치까지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으로 당나라가 신라의 삼국통일론을 비로소 인정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신라의 삼한통일론이란 바로 종족적으로도 고구려까지를 동일시하는 것인데, 신라가 고구려를 통합하였기 때문이다.

성덕왕대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는 함께 발해를 침공 혹은 견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33년에 들어와서 발해가 등주를 공격해오자, 당나라 현종은 칙서로 신라로 하여금 발해공격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신라가 군사를 일으켜 발해의 남쪽 변방을 공격해달라는 것이다.¹³⁰⁾ 마치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는 양상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이것은 신라로 하여금 발해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한편, 당과의 관계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하였다. 때문에 신라는 당나라와 발해의 관계를 계속 이용해 나갔다. 신라와 발해의 관계를 보더라도 유리한 것이었다. 이에 신라는 734년에도 김충신을 당에 보내어 발해를 계속해서 공격하겠다고 말한다. 즉 군사를 동원하여 발해를 쳐서 없애고 일이

129) 이러한 사실은 금석문인 묘지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권덕영, 위의 논문, 62쪽에 의하면 신라가 삼한으로 언급된 사례로는 693년에 처음 찾아진다. 효소왕대의 일이다. 그리고 834년의 경우라고 한다. 한편 이영호는 <재당 신라인 김씨 묘지명의 검토> 《신라사학보》 17, 2009에서는 780년에 만들어진 이 묘지를 통해서 당대의 기록에서 삼한이 신라를 가리키는 첫 사례로 언급하기도 한다. 이는 선덕왕대의 일이다. 어떤 경우이든 신라가 삼한으로 불리게 된 사례는 신문왕 말기 이후 신라와 당의 외교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다음의 시기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130) 《삼국사기》 8, 성덕왕 32년.

있을 때마다 계속 보고하겠다는 것이다.¹³¹⁾

이러한 가운데 신라는 그토록 염원해오던 패강 이남의 땅을 확보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신라는 735년에 보낸 두 차례의 사신과견을 통해서 당나라에 새로운 제안을 하였던 것이다. 김의충에 이어 파견된 김사란의 활동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¹³²⁾ 성덕왕은 김사란을 통해서 올린 표문을 통해서 패강 지역에 신라 군사를 주둔시켜 발해를 견제하는 의견을 당나라에 제시하였던 것이다. 신라가 패강 지역에까지 관심을 크게 확대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서 당 현종은 매우 좋은 계책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이러한 견해는 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당 현종이 김의충이 돌아갈 때 패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게 준다는 조칙을 주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라는 다음 해인 736년 사신을 보내 당이 패강 이남의 땅을 인정해준 사실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¹³³⁾ 그러나 이것은 당나라가 가지고 있던 패강 이남의 땅을 새롭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신라를 통해 발해를 견제하는 목적을 가졌더라도 당이 그동안 신라가 가지고 있던 패강 이남에 대한 지배권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을 의미한다.

131) 《삼국사기》 8, 성덕왕 33년.

132) 권덕영, <남북국시대의 견당사 관련기록>, 55~56쪽. 김사란에 대해서는 이영호, <김사란 : 당을 선택한 망명자> 《복현사림》 28, 2010을 참고할 것.

133) 《삼국사기》 8, 성덕왕 34년 및 35년. 최근 패강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남수는 이와 관련해서 김사란과 관련된 사료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이때 당시 이러한 김사란의 활동을 성덕왕 21년(733)으로 올려보기도 한다(<신라 성덕왕대 패강진 설치배경> 《사학연구》 11, 2013, 39쪽). 그러나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동맹이 새롭게 논의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것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달라진 당나라의 태도는 이른바 신라 군자국론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이는 신라를 삼한으로 지칭하였을 때의 기록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었다. 신라는 인의의 나라이며, 문장과 예악은 군자의 기풍을 드러내었다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효성왕대 당나라는 성덕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신라를 군자의 나라로 불렀다.¹³⁴⁾

이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는 중국이 동이의 여러 나라 가운데 어느 종족 혹은 나라를 명시적으로 지목하여 군자국이라 칭하지 않았다고 한다.¹³⁵⁾ 그러던 것이 8세기 중엽에 이르면 특정 국가를 군자국으로 구체화했는데, 신라를 동방의 군자국으로 비로소 지목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나라 현종대에 이르러 중국은 종래 막연하게 인식해오던 동방의 군자국을 신라로 구체화했으며, 이후 당은 신라를 군자국에 걸맞게 대우하였다고 이해하였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신라를 군자국으로 대우한 기록은 이미 8세기 중엽 이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7세기 중엽인 648년이였다.¹³⁶⁾ 김춘추가 고구려에 이어 당나라에 가서 청병외교를 벌일 때의 일이었다. 당 태종은 김춘추에게 신라에는 김유신이 있는데, 당의 도움이 왜 더 필요한 것이냐고 묻자, 김춘추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대답을 들은 당 태종은 신라를 군자의 나라라고 불렀던 것이다. 따라서 731년에 당이 신라를 인의와 군자의 나라로 언급한 것은 김춘추의 대당외교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성덕왕대 신라와 당의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다시 등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당나라는 태종대의 약속을 따라서 신라의 패강 이남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134) 《삼국사기》 9, 효성왕 2년.

135) 권덕영, <신라 군자국 이미지의 형성> 《한국사연구》 153, 2011, 168~173쪽.

136) 《삼국사기》 41, 김유신전 상.

다시 말해서 당 태종과 신라의 김춘추가 맺었던 밀약이 성덕왕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다. 거의 90년 만에 당나라는 신라의 김춘추에게 한 약속을 행하였다. 이는 신라의 삼국통일론이 735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추구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신라가 추구해온 독자적인 천하관이 당에 의해서 마침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 결과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당과 신라를 중심으로 발해와 일본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다시 정리되었다.¹³⁷⁾ 이에 신라와 당의 외교관계는 새롭게 전개될 수 있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이 어떻게 맞물리면서 형성되고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신라의 백제 및 고구려 멸망은 처음에는 양국 평정론으로 정리되었지만, 나당전쟁이 시작될 무렵에는 삼국통일론이 비로소 등장하였으며, 이후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서 삼한통일론이 계속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덕왕대 나당관계의 안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추구된 삼국통일론은 경덕왕대에 들어가서 다시 분열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비록 사상적인 측면이라고는 하지만 진표의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¹³⁸⁾ 이것은 삼국통일이 아니라 삼국분열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이다. 이에 하대 정권이 들어서면서 삼국통일론이 다시 강조

137) 이것은 734년 일본에 파견된 신라사신이 스스로 왕성국(王城國)이라고 자칭한 것 역시 신라의 대일본외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전덕재, <신라의 대외인식과 천하관>, 210~212쪽).

138) 이기백, <진표의 미륵신앙>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1986.

되었으며,¹³⁹⁾ 후삼국시대에 들어가면 더욱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¹⁴⁰⁾ 이에 대해서는 삼국통일론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기 :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 윤경진, <신라 통일기 금석문에 나타난 천하관과 역사인식 - 삼한일통의식의 성립시기 고찰> 《사림》 49, 2014와 김영하, <신라의 '통일' 영역 문제 -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위한 제언-> 《한국사학보》 56, 2014가 나왔다. 기존의 견해를 다시 주장하고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통일신라의 영역에 대한 문제를 새로이 제기하고 있다.)

139) 최홍조, <신라 신행선사비의 건립과 그 정치적 배경> 《목간과 문자》 11, 2013, 247~248쪽.

140) 조법중, <후백제 건국의 역사계승인식-고구려 및 백제의 마한계승인식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8, 1999 및 김병근, <최치원의 삼한관에 대한 인식과 평가> 《한국고대사연구》 40, 2005를 참고할 것.

【참고문헌】

- 존 씨 재미슨, <나당동맹의 와해 -한중기사 취사의 비교-> 《역사학보》 44, 1969.
- 이기백, <사대주의론의 재검토> 《민족과 역사》, 일조각, 1971.
- 이기백, <삼국사기론>, 1976 ; 《한국사학의 방향》, 일조각, 1978.
- 이기백, 《한국사강좌》 고대편, 일조각, 1982.
- 노태돈, <대발해 일본국서에서 운위한 ‘고려구기’에 대하여> 《변태섭기념사학논총》, 1985.
- 신형식, <고려전기의 역사인식> 《한국사학사의 연구》, 1985.
- 이기백, <진표의 미륵신앙>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1986.
- 한우근, 《한국통사》(개정판), 1987.
- 김수태, <백제의 멸망과 당> 《백제연구》 22, 1991.
- 김수태, <문무왕> 《한국사시민강좌》 13, 1993.
- 김수태,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 유민지배> 《이기백기념사학논총》, 1994.
- 권덕영, <남북국시대의 견당사 관련기록> 《고대 한중외교사》, 일조각, 1997.
- 전덕재, <신라 중대 대일외교의 추이와 진골귀족의 동향> 《한국사론》 37, 1997.
- 조법중, <고구려의 마한계승 인식론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102, 1998.
- 이문기, <신라 김씨왕실의 소호금천씨 출자관념의 표방과 그 성격> 《역사교육논집》 23·24, 1999.
- 조법중, <후백제 건현의 역사계승인식 -고구려 및 백제의 마한계승인식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8, 1999.
- 김수태, <신라 문무왕대의 대북속민정책> 《신라문화》 16, 1999.
- 이호영, 《신정 신라삼국통합과 여·제패망원인 연구》, 서경문화사, 2001.
- 이기동, <수·당의 제국주의와 신라외교의 묘체> 《신라문화》 24, 2004.
- 전덕재, <신라의 대외인식과 천하관> 《역사문화연구》 20, 2004.
- 김창겸, <신라 국왕의 황제적 지위> 《신라사학보》 2, 2004.
- 김병곤, <최치원의 삼한관에 대한 인식과 평가> 《한국고대사연구》, 40, 2005.
- 김창겸, <신라 중사의 ‘사해’와 해양신앙> 《한국고대사연구》 47, 2007.

- 김창경, <중국 고전문헌에 보이는 ‘바다(海)’의 의미-《상서》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12, 2007.
- 윤선태,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신라문화》 29, 2007.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 김영하, <단재 신채호의 삼국통일론>, 1983 ;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2007.
- 이영호, <‘신라삼국통일론’에서 ‘남북국론’으로 -김영하, 2007,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한국고대사연구》 52, 2008.
- 조영광, <7세기 중국인들의 대고구려 ‘삼한’ 호칭에 관하여> 《백산학보》 81, 2008.
- 김영하, <7세기 후반 한국사의 인식문제-신라의 백제통합론과 삼국통일론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6, 2009.
- 이영호, <재당 신라인 김씨 묘지명의 검토> 《신라사학보》 17, 2009.
- 김종복,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2009.
- 이영호, <김사란 : 당을 선택한 망명자> 《북천사림》 28, 2010.
- 김영하,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연구》 59, 2010.
- 주보돈 역시 <7세기 나당관계의 시말> 《영남학》 20, 2011.
- 노태돈, <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한국사연구》 154, 2011.
- 권덕영, <신라 군자국 이미지의 형성> 《한국사연구》 153, 2011.
- 주보돈, <통일신라 (능)묘비에 대한 몇 가지 논의> 《목간과 문자》 9, 2012.
-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 윤경진,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시기에 대한 재검토> 《사람》 45, 2013.
- 윤경진, <신라 태종(무열왕) 시호 논변에 대한 자료적 검토-원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51, 2013
- 윤경진, <신라 중대 태종(무열왕) 시호의 추상과 재해석> 《한국사학보》 53, 2013.
- 노중국, <백제사의 몇 가지 문제> 《신라사학보》 27, 2013.
- 박남수, <신라 성덕왕대 폐강진 설치배경> 《사학연구》 111, 2013.
- 김수태,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서술된 한국고대사의 흐름 -김영하,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한국고대사연구》 70, 2013.

- 김수태, <신라 신문왕대 국왕 친영례의 시행> 《신라사학보》 29, 2013.
- 최홍조, <신라 신행선사비의 건립과 그 정치적 배경> 《목간과 문자》 11, 2013.
- 주보돈, <신라의 ‘동경’과 그 의미> 《문자, 기록 그리고 기억의 전승》, 2014.
- 김진한, <「답설인귀서」에 보이는 신라·당 밀약기사의 사료적 검토> 《인문논총》 71권 1호, 2014.
- 채미하, <한국고대의 빈과 즉위례>, 신라사학회 발표문, 2014.
- 권덕영, <당 묘지의 고대 한반도 삼국에 대한 표기 검토> 《고구려 백제 유민 묘지명의 검토》, 2014.
- 윤경진, <신라 통일기 금석문에 나타난 천하관과 역사의식-삼한일통의식의 성립시기 고찰> 《사림》 49, 2014.
- 김영하, <신라의 ‘통일’ 영역 문제 -교과서 내용의 시정을 위한 제언-> 《한국사학보》 56, 2014.

ABSTRACT

Silla's World View, the Idea of the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Kim, Soo-tae

One of the ongoing disputed issues of the Middle Silla history i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question is whether it was initially intended for the unification of all three kingdoms or begun as a war to defeat only Baekje.

Silla did not began the war with the intention of unifying all three kingdoms. Silla was not in such a strong position to initiate the unification war against Baekje and Goguryeo. Its aim was the defeat of Baekje but, as Goguryeo was embroiled in an internal turmoil, Silla planned and took a leading role in destroying Goguryeo.

The claim of the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was first presented sometime around 671, when there was a first mention that Silla unified the three kingdoms. As Tang unified China, it claimed, Silla unified the three kingdoms. It also mentioned that Shill could not accept the moves of Tang to divide and rule Goguryeo, Baekje, and Silla. It claimed that Silla had become one with Goguryeo and Baekje.

In addition to the world view of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Silla proposed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Hans, in order to emphasize not

only the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but also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ethnic groups, which shared homogeneous characters. This idea of unification of the three Hans first appeared right before the death of General Kim Yushin in 673. While it was engaging a war with Tang China, Silla needed a unified front of the peoples of the three kingdoms as a practical necessity. It must have been recognized that, without an internal reconciliation, it was difficult to expect a real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Some argue that the idea of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as actually pursued either in 676 when King Munmu won a victory in the war against Tang China or in 685 when King Shinmun established the nine provinces. Either claim does not appear to be correct, however, since the majority of the former territory of Goguryeo was still under the control of Tang China. It was achieved only in 735 when the relation between Silla and Tang was improved and they made joint efforts to react to moves of Barhae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deok. Tang also belatedly recognized this time the rule of Silla in the area south of Daedong River. The promise that had been made between Emperor Taizong of Tang and General Kim Yushin during the reign of Queen Seondeok was finally fulfilled. The independent world view pursued by Silla was at last recognized by Tang China.

Key words : Silla, world view, the idea of the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Kim Chunchu, Emperor Taizong of Tang China, Kim Yushin, King Seongdeok

논문 투고일 : 2014. 11. 20 심사 완료일 : 2014. 12. 4 게재 확정일 : 2014. 12. 6